

# 전남대, 국감장서 재정적 어려움 호소

### 국감위원들에 “관심·지원” 당부해

### 인재 양성 효과적 정책 수립 건의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대학교·전남대병원에 대한 2020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병석 전남대총장은 “코로나19로 생활관(기숙사) 입주가 50%에 그치는 등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 총장은 “의과대학 화순캠퍼스 BTL생활관의 경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자부담분이 매년 2억5000만

원으로 현 재정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2020년도 이후 고시사업과 동일하게 국고지원 100%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부가 2020년도 이후 고시되는 국립대 학생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국고에서 시설임대료를 100%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함에 따라 2020년도 이전 고시돼 추진된 사업과 편차가 생기고 있다.

정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화의 물리적 제약으로 대면 국제화 초청과 과전이 어려워진 국내외 학습자

의 수요 해결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며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효과적 정책 수립도 건의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시스템도 복잡해졌다”며 “안전한 병원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이어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 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병원 직원들의 뜻도 한 데 모였다”며 병원 이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20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병석 전남대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동구, 제4회 문화예술공동체 비대면 축제 성료

광주 동구는 제4회 동구마을 문화예술공동체 축제 ‘그대 가슴에 풍경소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개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관중 없는 ‘비대면 전시·공연’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공동체 축제로 한 해 활동성과를 결산하고, 공동체간 소통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꾸며졌다.

## 서구, ‘별이 빛나는 밤에 작은 음악회’

광주 서구가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양3동 소재의 청춘발산마을 전당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시민들을 위해 일상의 소중함과 깊어가는 가을의 설렘을 담은 예정이다.

음악회는 밤하늘 은하수 조명 아래 ▲조형기(색소폰), ▲나리(플루트), ▲김수진(바이올린), ▲권준희(통기타)의 다채로운 클래식 연주 및 통기타 무대로 구성된다.

## 남구, 봉선1동 주민숙원 ‘마을 커뮤니티센터’ 문 연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된 광주 남구 봉선1동 마을에 돌봄과 쉼터 등의 기능을 갖춘 마을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연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3시 봉선1동 대신아파트에서 ‘봉선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봉선1동 마을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이곳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에서 비롯됐다.

봉선1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광주시에 신청한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나서 센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북구, 제7기 주민인권학교 참여자 모집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인권리더 양성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3일까지 ‘제7기 북구 주민인권학교’에 참여할 주민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민인권학교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생활 속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강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의는 27일 근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한재명 강사의 ‘아동권리와 아동학대’를 시작으로 ▲상호문화이해와 이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과 수어체언 ▲성평등한 공동체를 기원하는 시민의 힘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11월 11일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등 현장체험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행정지원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광산구, 분량동 지사협, 도·농 치매예방 프로그램 성료

광산구 분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기운)가 19일 분량마을 모정에서 농촌동 어르신들과 도시동 마을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열고,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 광주시의 ‘마을복지공동체사업’ 공모에 선정된 분량동 지사협은, ‘도·농교류 노인 돌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하나로 이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 이외에도 8월 명사초청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지역문제 진단’ 강연 등도 진행한 바 있다.

임행택기자

## 신민호 도의원, 청년정책 획기적으로 정책변화해야

### 청년층 유출 비율 전국 최대, 지역 정착 방안 마련 절실

전남 22개 시군 중 나주·무안을 포함한 18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 대비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로 계산하는데 전남 청년층의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최근 도정질문에서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층이 전남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의 인구 수가 187만 명까지 떨어져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구절벽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라남도의 전체 인구 순유출은 8,788명이고, 특히 청년층(20~30대)의 유출은 9,454명으로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졸업생의 지역 업체 취업률이 5%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졸자 3명 중 2명이 일자리

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실정”이라며, “청년 정책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전남도와 22개 시·군, 교육청과 지역 경제계, 대학 등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정책제언을 통해 농업지도사 임용시험 과목을 전문과목 3개로 축소하고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는 등 지역인재 보호와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지도직(농업) 공무원 임용시험 개편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인재채용의 일일비율을

지방대학에서 지원하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지역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협의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청년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타지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의료, 자금금 고취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눈앞에 닥친 인구 유출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미래비전을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과개편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만화학과·게임산업과를 신설하고 산학겸임강사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광주환경분쟁위,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 인정

### 공사 소음 정신적 피해 43명 대상 1700만원 배상 결정

도심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 생활 환경 피해에 대해 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회의를 열고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 주민 40여 명에게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직접 조사와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 피해액은 주민 측이 요구한 액수(9900만원)의 6분의 1 수준만 인정했다.

업체 측이 제출한 장비 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현장 방음벽 등 소음 저감 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dB로 수인한도인 65dB를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

동도는 57dB로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해 피해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게 산정됐다. 김미희기자

## 본사인사

### 양해영님

지역사회부  
곡성지역차장

2020년 10월 21일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발전소 동일사항

1.발전설비용량 : 99.45kw  
2.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0.16.~2020.10.26.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발전소명	6.발전사업신청자	7.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영남 태양광발전소	유영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m <sup>2</sup> /9,000m <sup>2</sup> )
2 문수2호 태양광발전소	허순금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418m <sup>2</sup> /9,000m <sup>2</sup> )
3 재환 태양광발전소	이재환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26m <sup>2</sup> /9,000m <sup>2</sup> )
4 문수1호 태양광발전소	김중현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46m <sup>2</sup> /9,000m <sup>2</sup> )
5 금희2호 태양광발전소	박금희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882m <sup>2</sup> /9,000m <sup>2</sup> )
6 사남2호 태양광발전소	최사남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m <sup>2</sup> /9,000m <sup>2</sup> )
7 화영2호 태양광발전소	유경서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314m <sup>2</sup> /9,000m <sup>2</sup> )
8 화영1호 태양광발전소	함미경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 140,141 (1,102m <sup>2</sup> /9,000m <sup>2</sup> )
9 현주 태양광발전소	송현주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 615-2(917m <sup>2</sup> /9,881m <sup>2</sup> )

“호남신문과 함께할  
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해남**

문의전화 (062)229-60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복합에서 제안한 슬로워크입니다.